

# 타이완 원주민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 분석\*

－ 排灣族, 卑南族, 魯凱族 신화를 중심으로 －

李仁澤\*

## 目 录

1. 도론
2.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
  - 1) 石生과 竹生
  - 2) 태양과 卵生
  - 3) 뱀과 卵生
3. 결론

## 1. 도론

타이완에는 현재 50만 명 정도의 원주민이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945년 중국의 타이완 수복 후 고산족으로 불려오다가, 1997년부터 원주민으로 호칭되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이들의 핏줄, 언어, 문화 차이에 따라 阿美族, 泰雅族, 布農族, 鄒族, 魯凱族, 排灣族, 卑南族, 雅美族, 賽夏族, 邵族, 泰魯閣族, 噶瑪蘭族, 撒奇萊雅族, 賽德克族 등 14개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10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蔚山大 中國語中國學科 教授

1) 1954년 타이완 정부는 원주민을 阿美族(Ami), 泰雅族(Ataya), 布農族(Bunun), 鄒族(Tsou, 曹族), 魯凱族(Rukai), 排灣族(Paiwan), 卑南族(Puyuma), 雅美族(Yami 또는 達悟族(Tao)), 賽夏族(Saisiat) 등 9개 종족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邵族(Tsao), 泰魯閣族(Truku), 噶瑪蘭族(Kavalan), 撒奇萊雅族을 추가하고, 2008년에는 泰雅族으로부터 賽德

이들은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5천년 이상 타이완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언어문화와 풍습을 형성해온 만큼 그들의 신화고사는 漢族의 문헌고사 못지않게 초기 형태를 유지하면서도,<sup>2)</sup>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林道生의 『原住民神話故事全集』과 布農族 達西烏拉彎 畢馬의 『原住民神話大系』<sup>3)</sup>를 참고해 보아도, 그들 신화에는 창세와 인류기원, 홍수, 남매혼, 石頭, 변형, 交婚, 英雄射日, 선악, 머리 베기, 재생, 무속, 난생, 감응, 금기, 矮小人 등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모티프가 담겨있다.<sup>4)</sup>

원주민들 사이에 구전되어오는 신화고사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1970년대 이후 타이완 지역 및 일본, 러시아 학자들 중심으로 구전자료를 채록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達西烏拉彎 畢馬 등 타이완 학자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고사를 정리해오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과학원의 李福清(B. Riftin)이 타이완 원주민 신화를 대륙 소수민족, 남양군도와 폴리네시아, 남아시아 및 아메리카 인디언 전래 신화고사와 포괄적으로 비교한 논문 「臺灣土著民族與大陸南方諸族人類起源神話的比較研究」(1986)와 저서 『神話與鬼話』(2001)를 발표하였는데, 깊이 있는 비교연구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漢族과 대륙 소수민족 신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반면, 타이완 원주민 신화를 다룬 논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신화적 가치와 문학적 수준의 뛰어난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대중적 소개나 학술적 연구가 없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 학계의 중국 신화 연구 영역에서 타이완 원주민 신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 작

克族을 분리하였다. 陳文新, 『高山族』(烏魯木齊: 新疆美術攝影出版社, 2010), 5쪽 참조. 그리고 타이완 원주민의 민족 이동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토착민설, 서쪽설, 대륙 동남 越人 지파설, 말레이시아계설, 중국 남동부 연해지역 주민과 필리핀 및 유구 군도에서 온 소수의 주민이 융합하여 형성되었다는 복수원류설 등이 있다. 潛明茲, 『中國神話學』(寧夏: 寧夏人民出版社, 1994), 411-412쪽. 李福清, 『神話與鬼話』(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4-5쪽 참조.

2) 馬昌儀, 『中國神話學文論選萃(下)』(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4), 419쪽.

3) 그의 『原住民神話大系』(臺北: 晨星出版, 2002-2003) 시리즈에는 泰雅族, 賽夏族, 鄒族, 布農族, 排灣族 등 10개 종족의 신화전설이 담겨있다.

4) 서유원, 『중국창세신화』(서울: 아세아, 1998), 93쪽.

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阿美族, 泰雅族, 布農族의 신화를 대상으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과 상호 연계성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인 排灣族, 魯凱族, 卑南族 신화의 특징을 분석하고,<sup>5)</sup> 아울러 이들 종족 간 관계성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타이완 원주민 신화에는 천지창조 고사가 별로 없는 반면에 이미 만들어진 세상 이후의 일을 서술한 고사나 인류기원 관련 고사는 풍부한 편이다.<sup>6)</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류기원 고사, 특히 종족 시조의 출생을 담은 族源神話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 2.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

원주민의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神造人, 천지가 어우러져 인간을 출생하는 天地交合生人, 신인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天降, 자연 속에서 인간이 출현하는 自然生人, 그중에서도 나무가 인간을 출생하는 樹生人和 竹生人, 돌에서 인간이 나오는 石(頭)生人, 알에서 인간이 부화되어 나오는 卵生, 동물변형과 化生 그리고 감응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중 排灣族, 魯凱族, 卑南族 인류기원 신화에는 石生과 竹生, 태양과 뱀의 卵生 유형이

- 5) 비남족은 노개족, 배만족과 같은 족속으로 분류되었다가, 1954년에 독립적인 족속으로 분리되었다. 문화유적이 풍부한 민족이며 집안 내 권리는 장녀가 상속하는 모계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남족 신화에는 선조들이 멀리 바다 밖에서 蘭嶼 섬과 타이완 섬 동해안으로 이주하였다고 설한다. 타이완 남부 중앙산맥 동서 양 지역에 거주하는 노개족은 배만족 관습과 비슷하며, 언어와 문화는 포농족 영향을 많이 받았다. 원주민 종족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배만족은 백보사의 자손[百步蛇之子]으로 불리며, 후에 테로각족과 분리되었다. 신석기 절강성 하모도 문화와의 밀접한 관계로 보아 배만족은 중국 고대 남방 白越 민족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기원하여 중국 윈난을 거쳐 타이완 타이난으로 이동하였다는 설도 있다.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臺北: 星辰出版, 2003), 29쪽, 39쪽, 57쪽.
- 6)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 46쪽.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1) 石生과 竹生

排灣族은 시조의 石生 또는 竹生 신앙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화도 간직하고 있다. 우선 石生 중 石中生人 유형 고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태고 시절에, 돌 속에서 태어난 위인이 있었는데,神通력이 광대하고 인류를 불러내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모든 인간들에게 모이라고 하자 사방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자신은 두목이 되었다.<sup>7)</sup>

台東 東排灣人 고사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기렌(Giren)가의 선조는 큰 돌에서 나왔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임신한 임신부 모양의 큰 돌을 보고 창으로 찔렀는데, 그 돌에서 일남일녀가 나왔다<sup>8)</sup>

돌에서 태어난 사람은 특출한 부족 리더로 묘사되고 있다. 石生人 유형은 여기에서 리더의 신비롭고 기이한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魯凱族 신화에도 암석 틈으로 시조인 蘇給拿力米가 탄생하여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손을 이어간다는 石中生人 이야기가 있다. 돌에서 출현하는 사람은 남자 혼자인 경우도 있고, 남녀가 함께 나와 이들이 서로 결혼하여 인류를 번성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다.<sup>9)</sup>

7) “太古時候，有個從石頭中生出來的偉人，神通廣大，具有號召人類的神力，當他下了一道命令……「所有的人都集合過來！」的時候，從四方就來了數不清的人，他便自己當起頭目來。” 林道生, 『原住民神話故事全集5』(臺北: 漢藝色研, 2004), 100쪽.

8) “Giren家的祖先是從大石出生的，從前有一個男人看見一塊狀似懷孕婦人的大石，就用槍刺它，於是石中生出一男一女。”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臺北: 星辰出版, 2003), 42쪽.

魯凱族 신화에는 석생 유형 중 石破生人 고사가 보인다.

태고 시절, 卡利阿蘭山 꼭대기에 큰 암석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암석이 깨져 돌로 쪼개지면서, 그 가운데서 赫馬利利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나왔다.<sup>10)</sup>

한편 비남족의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석생 유형 고사가 있다.

옛날 Kinabukan에 큰 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깨지더니 남녀 두 명이 나왔다. 둘은 서로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는 뱀, 둘째는 맹인, 다음에는 머리가 없는 장애아를 낳다가 마지막에서야 온전한 남녀 아이를 낳았다. 이들 중 일부는 비남족의 시조가 되었고, 나머지는 배만족의 선조가 되었다.<sup>11)</sup>

여기서 비남족과 배만족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기술은 양 종족의 밀접한 혈연관계를 보여준다. 홍수와 남매혼 고사에서 주로 보이는 남매혼 후기형아 출생 장면이 여기서 묘사된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비남족의 또 다른 석생 유형 고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상고시대에 돌이 쪼개지면서 사람 모양의 물체가 나왔는데, 두 무릎에 눈이 달려있고 앞뒤로 얼굴이 있었다.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어린 아이를 품고 있었고 후에 남녀 2인을 낳았다. 그 둘은 결혼하여 돌을 낳았다. 그 돌들에서 여자와 남자가 나왔고 이들이 결혼하면서 진짜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출산한 남매가 또 결혼하여 자매인 Ruvi-ruvi

9) 達西烏拉彎 畢馬, 『魯凱族神話與傳說』(臺北: 星辰出版, 2003), 40쪽.

10) “太古時候, 卡利阿蘭山頂有一塊岩石, 有一天岩石裂開爲二, 從中出現了一個男人, 名字叫赫馬利利。” 林道生, 『原住民神話故事全集5』, 79쪽.

11) “太古, Kinabukan處有大石, 一日裂開生出男女二人。二人相婚生下許多子女, 但第一胎是蛇, 其次是瞎眼兒, 再次是無頭的。最後才有完整的男女, 一部分爲卑南族之祖, 其餘成排灣族的祖先。”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44-45쪽.

와 Ta-ta를 낳았다. Ruvi-ruvi는 아미족 남자를 데릴사위로 두면서 이 종족의 선조가 되었다.<sup>12)</sup>

石破生人, 기인출현, 남녀결혼, 人生石, 石生人, 남매혼 등 다양한 유형이 결합된 이야기다. [돌→인간→돌→인간→인간끼리 결혼→인류번성]이라는 도식, 즉 石生人和 人生石의 반복 리듬 속에 인류 탄생이 이루어진다. 비남족과 아미족의 혈연적 관계성도 기술되어 있다.<sup>13)</sup>

한편 배만족 고사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던지자 돌이 깨지면서 신인이 나왔고, 왼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를 땅에 세우자 대나무 윗가지에서 여신이 나오고 아래가지에서 남신이 나와 이들이 배만족의 후대를 번식시켰다”<sup>14)</sup>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돌로부터 출현한 신인이 쫓은 대나무에서 남신과 여신이 출생하여 배만족의 시조가 된다는 [石生+竹生] 결합 구조를 띠고 있다. 남녀 출현의 위치를 통해 모계제 풍습도 확인된다.

배만족 신화에는 다음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고사도 있다.

신 Ulapulaujan이 돌 위에 대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번개가 대나무를

12) “上古時代，石頭裂開來而有人形模樣的東西出來，兩膝上長著眼睛，前後都有臉孔。在右足的小腿肚裡懷著小孩，後來生下男女二人。他們成婚後生下了石頭。女孩和男孩出生自此石頭，從這個時候才開始有了真正的人類。他們生下了男女二人，後來二人又成婚生下了 Ruvi-ruvi和Ta-ta兩姊妹，Ruvi-ruvi招贅了阿美族男子，這就是知本社的祖先。” 達西烏拉灣 畢馬，『卑南族神話與傳說』，52쪽.

13) 거석에서 나온 여인과 사냥꾼의 결합으로 비남족 선조가 출현한다는 또 다른 석생 유형 고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거석이 어느 날 흔들리더니 깨지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안에서 나왔고 이 여인은 새를 잡아먹고 아름다운 깃털로 몸을 들렀다. 한 사냥꾼이 이 여자를 보고는 좋아하여 아내로 맞이하였고, 많은 자손을 낳았다. 이들이 그 조상의 유래라고 한다.(有一天，巨石裂開了，有一位美麗的女孩從石縫中出來。這女孩就是捕抓作為食物，而且以漂亮的羽毛，圍在身上。有一位獵人愛上了這位女孩，取之為妻，並且生下了很多孩子。據說，他們就是部落祖先的由來.)” 達西烏拉灣 畢馬，『卑南族神話與傳說』，53-54쪽.

14) “在很古的時候有位女神，右手捧石，左手持竹，女神投其石，石即分裂，產生出一神人，女神又將竹直立於地，由竹的上節，又產生出女神，竹的下節也產生出一男神，有此男女兩神後，才傳下本地排灣族的後代。” 達西烏拉灣 畢馬，『排灣族神話與傳說』，43쪽.

가르자 여인이 나왔고, 돌을 가르자 안에서 뱀이 나왔다. 이 뱀이 여인을 삼켜먹고 남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들이 후에 배만족 선조가 되었다.<sup>15)</sup>

신의 主宰 하에서, 여인과 뱀이 각각 대나무와 돌에서 출현하고, 후에 뱀이 여인을 삼키고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石生男 설정이 뱀의 등장이라는 설정으로 대체되고, 남녀 혼인으로 쌍둥이를 낳는 장면은 뱀이 여인을 삼킨 후 아이를 낳는다는 특이한 설정으로 바뀐다. 인수 간 교혼과 獸生 모티프 즉 뱀과의 교혼과 蛇生 고사가 추가된 형태이다.

배만족 신화 중 석생 유형은 석중생인과 석과생인 유형 모두 나타나며, 竹生과 蛇生 유형이 혼합되기도 있다. 이는 그 종족 구성이 복잡하며 문화적 연원이 깊음을 나타낸다. 그 이동 구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자연스레 비남, 노계, 포농, 태로각, 대륙 남방민족 등 타 종족과 언어나 문화, 혼인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토켄 역시 혼합된 것으로 풀이된다.

[석생+ 죽생] 결합구조는 卑南族 시조신화에도 나타난다. 여신이 들고 있던 돌과 대나무 사이에서 나온 神人이 각기 다른 종족의 조상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이다.

Panapanayan 지역에 여신이 출현하였는데, 오른 손에는 돌을 왼손에는 대나무를 들고 있었다. 여신이 돌을 던지니 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서 한 명의 神人이 출현했는데 이 신인이 후에 阿美族의 선조가 된다. 여신은 다시 왼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를 힘껏 땅에 꽂으니 대나무 위쪽 마디에서 Pakonseru라는 여신이 출현하고 아래쪽 마디에서는 Pakomarai라는 남신이 출현하였다. 이 두 신은 卑南族의 조상이 된다. 그 둘의 후예는 Raolaosu 남신과 Soragasu 여신이다. 이들은 또 Parogaos 남신, Pakasukasu 여신, Pakorashi 여신, Parai 남신을 낳았다. 그중 Pakorashi 여신과 Parai 남신의 혼인으로 낳은 아이는 점차 사람 형태를 보였다.<sup>16)</sup>

15) “Ulapulaujan神在石頭上種了一根竹子。某日，雷將竹子劈開，有個女人走了出來。雷又將石頭劈開，裏面走出一條蛇。蛇把女人吞到肚裏，生下一對雙胞胎，一男一女，即為排灣族的祖先”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45쪽.

16) “從前，在帕拿帕拿央(Panapanayan)的地方出現了一位女神，右手拿著石頭，左手拿著竹子。不久，女神投出了石頭，石頭落地裂開為兩半，從中出現了一位神人。這就是後來阿族

여신이 들고 있던 돌에서 신인이 출현하여 阿美族 선조가 되고, 그녀가 꽃 았던 대나무에서 여신과 남신이 출현하여 卑南族 선조가 된다.<sup>17)</sup> 아미족과 卑南族의 혈연적 친연성이 다시금 엮인다.<sup>18)</sup>

이 고사는 [여신→여신과 남신→부부가 됨→남신과 여신 출산→두 명의 여신과 두 명의 남신 출산→人化]라는 과정 속에서 신과 인간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면서 신계에서 인계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기서 창세 과정이 여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排灣族 신화에서도 나타났던 모계사회의 단면을 반영한다. 모계사회[只知其母, 不知其父] 풍속이 현재 卑南族을 포함하여 排灣族, 魯凱族, 阿美族에게 남아있다는<sup>19)</sup> 사실은 이들 종족 간 관계성이 밀접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 고사는 석생과 죽생 결합 유형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미족 기원은 석생이고, 卑南族 기원은 대나무에서 남녀가 동시에 출현하여 번성시킨다는 죽생이다. 아래의 인용문도 죽생 유형 고사로서, 이렇게 죽생 유형만으로 구성된 고사도 있다는 점이 排灣族 신화와 다른 점이다.

美族人的祖先。女神再度把左手所拿著の竹子用力豎在地上，這是從竹子上方的節出現了一位女神叫帕孔賽(Pakongseru)，然後從下方的節也出現了一位男神叫帕科馬來(Pakomara i)。這兩位神人就是卑南社卑南族人的祖先。他們的後裔有拉俄拉俄伊斯(Raolaoisu男神)及瑟拉嘎絲(Soragasu女神)。此二神又生下帕拉洛卡厄(Parogaos男神)、帕卡斯卡絲(Pakasukasu女神)、帕珂拉西(Pakorashi女神)、帕拉比(Parai男神)四位男女神。帕珂拉西和帕拉比所生的人，已具備人類的形態了。”林道生，『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臺北：漢藝色研，2003)，98쪽 참조.

17) 두 형제가 휴식을 취할 때 형은 돌에 앉고 동생은 대나무를 땅에 꽃았는데, 후에 형이 았던 돌에서 여자가 나왔고, 동생이 꽃아둔 대나무에서는 남자가 나왔다는 신화도 전해진다.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 28쪽, 51쪽.

18) 실제로도 卑南族과 아미족이 타이완 동부 臺東 평원에 거주하고 있음에서 그 동일 기원이 확인된다. 그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선조가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臺東 파나파나안(Panapanayan)으로 이주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한 여신이 등장하지 않고, 阿美族이 키운 대나무에서 卑南族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阿美族에서 卑南族이 파생되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 50쪽, 59쪽 참조.

19) 林道生, 『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 99-102쪽.

奴奴兒茅蘇라는 남자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해안가에 다다른 후 대나무를 주워 지팡이로 사용하였는데 너무 피곤하여 돌로 변하였다. 그리고 땅에 꽂아둔 대나무 지팡이에서 가지가 자랐는데, 윗마디는 柏克瑪萊라는 남자, 아랫마디는 芭谷慕莎라는 여자로 변하였다.<sup>20)</sup>

이번에는 거꾸로 대나무 가지 위에서 남자가, 가지 아래에서 여자가 출현하고 있다. 사회제도 측면에서 볼 때, 모계에서 부계로의 전이 과정의 자취로 판단된다.

竹生人 유형 고사는 대나무 숭배 문화의 반영물로서 말레이반도의 세망족(semang),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토착민, 필리핀 민다나오 토착민, 미크로네시아 토착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sup>21)</sup> 이를 통해 타이완 원주민 종족의 문화가 동남아 고문화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석생 유형과 모계제를 종합해서 보면, 노개족, 비남족, 배만족 그리고 아미족은 모계제와 석생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상호 혈연적 연계성을 보인다.<sup>22)</sup> 그리고 죽생까지 확대하여 보면 배만족과 비남족, 그리고 비남족과 아미족 간의 친연성이 특히 깊게 나타난다.

## 2) 태양과 卵生

타이완 원주민 신화 중에는 태양과 관련 있는 卵生 유형이 적지 않다. 일반

20) “有一位名叫奴奴兒茅蘇的男子，在海上漂流到海岸，在海岸上拾到了一根竹子，以之爲杖，因爲太累了，變成一塊石頭。那插在地上的竹杖，開始生出新的竹枝，上節的竹枝生出后，變成一個男人，下節的竹枝生出后，則變成一個女人。”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 48쪽.

21)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 51쪽. 숲속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마시는데 사용한 용기는 대나무로 만들고, 대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지피기도 한다. 타이완 원주민 생활환경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강한 번식력을 지닌 대나무를 그들은 인류의 원천으로 여겼을 것이다.

22)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 60쪽 및 林道生, 『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 102쪽 참조.

적으로 태양 관련 난생 유형은 태양이나 태양신이 낳은 알에서 인간으로 부화하거나, 태양조가 낳은 알을 인간이 먹고 자식을 출산하는 天降卵型和 여인이 天帝와의 교류나 감응으로 임신하여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하여 아이가 출생하는 人生卵型이 있다.<sup>23)</sup> 하늘의 메신저인 태양조가 알을 낳는다는 구조는 태양이 직접 알을 낳는 다는 구조보다 후에 출현하였고, 사람이 태양 감응으로 알을 낳는다는 것은 의인화된 고사로서 좀 더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만족 고사에서는 그중 天降卵型 유형이 전해진다.

돌기둥 뒤에 태양이 낳은 알 두 개가 있었는데 부화하여 1남 1녀가 나왔고, 그들 둘은 부부가 되었다.<sup>24)</sup>

태양이 붉은색과 흰색의 알 두 개를 낳고 百步蛇에게 이 두 알을 보호하라고 명한다. 이 두 알은 후에 부화하여 남녀 두 신으로 되었고, 이들의 후예가 排灣族 귀족의 선조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평민의 선조는 푸른 뱀이 부화하여 나왔다.<sup>25)</sup>

어느 날, 태양이 두 개의 알을 대무산 정상에 낳았는데, 백보사가 부화하여 사람으로 태어나 귀족이 되었다. 이와 별도로 푸른 뱀이 부화하여 사람이 태어났는데 평민이 되었다. 따라서 하늘이 낳은 귀족과 평민의 신분이 달라 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sup>26)</sup>

첫 번째 고사는 태양이 낳은 알이 인간으로 부화한다는 태양 난생 유형으

23)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서울: 교문사, 1993), 202쪽. 전자는 은 민족 간적의 ‘玄鳥生商’ 고사가 대표적인 예이고, 후자는 유화가 태양신 해모수의 감응으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탄생한다는 주몽고사가 대표적 예이다.

24) “柱後有兩個太陽所生的蛋，從中孵出一男一女，兩人結爲夫妻。”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90쪽.

25) “太陽降下紅白二蛋，命百步蛇保護。不久孵出男女二神，這二神的後裔變成了排灣族之貴族的祖先。至於平民之祖先，就是青蛇所孵出來的。”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32-33쪽.

26) “有一天，太陽下了兩個卵在大武山頂上，經由一條百步蛇孵化而生出來的人是貴族，另由青蛇孵化而生出來的是平民。因此，天生貴族與平民的身分下同，互不嫁娶。”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32-33쪽.

로 여기에서 생명력을 상징하는 돌기둥은 생명 탄생의 징후를 더욱 길게 해 주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고사는 태양의 난생에 뱀이 추가로 등장한다. 뱀은 여기서 태양이 낳은 알을 보호하고 부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원주민들은 알을 낳는 뱀의 생태를 자신들의 시조 탄생에 자연스럽게 적용시키고 있다. 다만 ‘귀족’과 ‘평민’이라는 용어 사용은 후대 계급사회 형성기의 사고를 반영한다.

“태양신 카다오(Kadao)가 하늘에서 대지로 강하하여 큰 연못에 알 세 개를 낳았는데, 개가 처음 본 큰 알을 보고 끝없이 짖어댔고, 신기하게도 연못물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점점 줄어들었다가 후에 햇빛을 받더니 1년 2남이 알 속에서 나왔다”<sup>27)</sup>는 이야기처럼 뱀 대신 개가 조력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개는 생명 탄생의 서상을 알리는 동시에 생명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2남과 같은 비대칭 구조는 納西族 신화에서만 발견되었던 보기 드문 사례이다.

신화에서 물은 생명력과 생식력을 상징한다. 여기서도 연못물은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줄어들면서 생명 탄생에 조력함으로써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 머물다가 마지막 순간 양수가 터지면서 출생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sup>28)</sup>

한편 뱀이 난생의 방해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태양이 두 개의 알을 낳았는데, 큰 뱀 한 마리가 와서는 태양 알을 삼켰다. 이 상황을 본 세 여인은 화가 나서 이 가증스러운 뱀을 제거하러 갔다. 하루는 결국 힘을 합쳐 뱀을 잡아 비낙기극강 속 깊이 던져버렸다. 다음 날 태양이 또 예전처럼 알을 낳았는데 이미 뱀을 없앴기 때문에 태

27) “太陽神(Kadao)從天上下降到大地, 在大池塘產下三個卵。正在大池塘邊的狗看了從來都沒有見過的大卵而不停的吠叫。說也奇怪, 池塘的水就這麼隨著狗的吠叫聲漸漸的減少了。後來在陽光之下, 從里面走出來一女二男。” 林道生, 『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 115쪽.

28) 부여 신화에서 유화가 압록강 가에서 해모수의 감응으로 주몽을 잉태하는 장면, 만주족 신화에서 佛古倫이 압록강 가에서 朱果를 입에 넣고 布庫里雍順을 잉태하는 장면,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태초의 바다인 나무(Namu)의 모습과 비견된다.

양 알은 마침내 부화하여 1남 1녀가 되었다.<sup>29)</sup>

이 고사에는 天降生卵 유형에 방해자인 뱀을 세 여인이 제거한다는 내용이 결합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고사에서는 뱀이 알을 보호하는 순기능적 선역을 맡았는데, 여기서는 역기능적 악역을 맡고 있다. 뱀을 바라보는 타이완 원주민의 양면적 시각이 엿보인다. 그리고 여기서는 1녀 2남이 탄생한다는 비대칭 배합 구조 대신 1남 1녀라는 대칭 배합구조로 대체되어 있다. 이처럼 이질적인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원이 다른 고사들이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양이 낳은 알이 인간으로 화한다는 일반적인 태양 난생 구조와는 달리 태양과 알에 뱀이 결합되면서 생동적이고도 독특한 느낌을 구현하고 있다. 난생 유형의 기본 틀 위에 여러 신화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풍부한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방해자 겸 혼인 대상자로서 뱀이 등장하는 고사도 있다.

태양신이 알을 낳았는데, 부근을 지나던 뱀이 삼켰다. 태양신이 실망을 하였지만 다시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이 부화하여 여자가 나왔다. 태양신이 또 알을 하나 낳았는데, 나중에 부화하여 남자 한 명이 나왔다. 여자는 나중에 백보사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낳았다.<sup>30)</sup>

뱀의 방해 속에 태양신이 낳은 알이 부화하여 시조가 탄생된다는 난생 유형에 뱀과의 교혼 유형이 결합된 이야기다. 한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은 보통 한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다른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29) “從前，太陽每天來到叫馬卡榮基的地方。有一次，太陽下了兩個蛋，卻來了一條蛇吞下了太陽的蛋。看了這情形的三位女人，很生氣的要去除掉這條可惡的大蛇。有一天，終於合力抓住了大蛇，把牠投奔到比諾基克江的深淵。次日，太陽又照常來下蛋，因為已經消滅了蛇，太陽的蛋終於孵化出一男一女。”林道生，《原住民神話故事全集5》，101쪽.

30) “太陽神產下了一個卵，被附近經過的一條蛇吞下。太陽神有些失望，只好再生了一個卵，在孵出一個女子。太陽神再生一個卵，孵出來的是一個男子。女子長大嫁給了百步蛇，生了一男二女。”林道生，《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116쪽.

이례적이다.

이상 고사들을 관찰해보면, 결국 태양강림과 난생 및 뱀의 방해 유형과 뱀과의 교혼 유형이 각각 계통을 달리하며 존재해오다가 후에 하나의 고사 속에 용해된 것으로 보인다. 태양 토렘 종족과 뱀 토렘 종족이 통혼하면서 태양의 난생과 일종의 蛇生 유형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이밖에 태양이 토병에 알을 낳았다(太陽在壺中下了一個蛋)는 고사가 있고,<sup>32)</sup> 태양 빛을 받은 도자기병이 알을 낳아 인간을 탄생시킨다는 고사도 있다.

여자 도자기병이 있는데, 이 도자기가 양광을 받아 여성의 알을 낳았다.  
이 알이 포코안(Pocoan) 집안의 남성 영혼과 결혼하여 한 여인을 낳았고, 이 여인이 또 산속의 백보사와 결혼하여 두 남자아이를 낳았다.<sup>33)</sup>

태양 난생 유형이면서 [도자기병+양광+뱀과의 교혼]의 결합구조를 지닌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 도자기병은 여신 출생지 역할을 하며, 여인의 뱀과의 결혼은 뱀이 남성시조임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배만족은 백보사가 인류의 남성 시조이자 화신이기며 마음대로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있다.<sup>34)</sup> 물론 이 고사는 도자기 문화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산물로 볼 수 있다. 한편 魯凱族 신화의 난생 유형 고사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태양이 산위에 두 개의 알을 낳았는데, 하나는 희고 또 하나는 붉었다. 부눈(Vunun)이라는 뱀이 와서 알을 부화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쌍의 남녀신이 모습을 갖추더니 부화하여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이 부락 두목의 선조이다. 기타 평민들은 또 다른 청색 뱀이 낳은 알

31) 林道生, 『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 117쪽.

32) 林道生, 『原住民神話故事全集5』, 99쪽.

33) “傳說有一個女陶壺, 此陶受陽光照射孵出了一個女性的蛋, 此蛋與Pocoan家一個男性的靈魂結婚, 生下了一女人, 此女子又和山裡的百步蛇結婚, 生下了二男孩。”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31쪽.

34)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30-31쪽.

이 부화하여 생겨났다.<sup>35)</sup>

옛날, 태양이 도자기병을 좋아하여 거기에 알을 낳았는데 백보사가 수호하며 보호하였고 후에 부화하였는데 이들이 노개족의 남녀 시조로 되었다.<sup>36)</sup>

첫 번째는 태양의 난생 및 조력자 뱀의 부화 유형으로서, 귀족과 평민이라는 계급사회 사고도 반영되어 있다. 태양과 난생, 색깔이 다른 알에서의 부화와 계급 차이, 뱀의 조력 등 요소들이 배만족 고사와 흡사하다. 두 번째 고사 역시 태양이 토병에 알을 낳는다는 배만족 고사 설정과 흡사하다. 양 종족 공히 태양과 도자기병을 승배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고<sup>37)</sup> 여기서 양 종족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엿보인다. 다만 노개족 신화에서는 뱀의 순기능 역할만 보인다는 점이 배만족과 다르다.

이밖에 노개족 신화에는 태양과 병이 결혼하여 알(여성)을 낳고, 이 알이 돌에서 나온 남자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백보사와 결혼하여 두 명의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장남은 승천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sup>38)</sup> 여러 종족이 통혼을 거쳐 융합하는 과정에서 태양, (도자기)병, 돌, 백보사와 같은 토템들과 난생, 교혼, 승천, 모계제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어우러진 현상으로 풀이된다.<sup>39)</sup>

35) “有一天，太陽在山上產了兩個蛋，有一條蛇Vunun前來孵卵。不久，一對男女神成形，孵化而生，他們就是這個部落頭目的祖先，其他的平民則是另一種青色的蛇，產下的卵所孵化生出的。” 達西烏拉彎 畢馬, 『魯凱族神話與傳說』, 29쪽.

36) “傳說遠古時代，太陽愛上了陶壺，他們生下了蛋，由百步蛇守衛保護，後來孵出魯凱族男祖與女祖。” 達西烏拉彎 畢馬, 『魯凱族神話與傳說』, 33쪽.

37) 達西烏拉彎 畢馬, 『魯凱族神話與傳說』, 33쪽.

38) 達西烏拉彎 畢馬, 『魯凱族神話與傳說』, 34쪽.

39) 노개족 신화 중에는 특히 檳榔(betel nut)이라는 열매의 감응으로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빈낭은 알 대신 태양의 매개 역할을 한다. “이때 돌연 빈낭과 석회가 하늘로부터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 당시의 하늘은 원래 낮아서 머리가 달을 정도였다. 누이는 “이 빈낭 태양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며 姆多克多是 빈낭을 먹었다. 열매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고 西馬拉萊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남매는 세심하게 태양의 아들을 보살폈고, 이 기간 중에도 창문으로

배만족과 노개족의 태양과 난생 유형에는 태양조(sun bird)가 등장하지 않고 태양 또는 태양신이 직접 알을 낳았다고 표현되어 있다. 태양이 직접 알을 낳는 구조는 『시경』 속 태양조인 현조가 알을 낳는다는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태양이 직접 알을 땅에 낳는다는 고사가 태양조가 알을 낳는다는 고사 유형보다 먼저 출현했다고 볼 때, 타이완 원주민 고사는 시원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3) 뱀과 난생

排灣族 신화에는 뱀의 난생 유형 고사도 있다.

태고시대에 한 차례 홍수가 범람한 후 대지 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신령이 산에서 蛇卵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눈에서 신령스러운 빛을 방출하여 뱀 알의 내부를 투시하여 자세히 보니 사람 형태가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뱀 알은 양광을 받아 과일되었는데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가 배만족 귀족의 조상이다.<sup>40)</sup>

아이의 옷이 날아 들어왔다.(這時突然從窗戶飛進來檳榔和石灰, 那時的天本就低得都要碰到頭了。妹妹說: “這檳榔是太陽要給我的吧!” 姆多克多克吃下了檳榔, 不久就懷孕生下男孩叫西馬拉萊。兄妹兩人很細心的照顧着太陽之子, 這期間也常常從窗戶飛進來孩子的衣物。) 빈랑의 감응으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태양의 아들이라고 표명함으로써, 하늘에서 떨어진 빈랑이라는 열매가 태양신의 매개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태양과 타이완의 특산물 빈랑 간의 연계 구조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신화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태양이나 태양신이 알을 낳는 난생 구조와는 조금 다르지만, 아열대 지방인 타이완 섬에서 많이 생산되는 빈랑의 둥그런 생김새가 태양이나 알의 둥근 형태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40) “太古時候, 在一次大洪水的氾濫後, 大地上再也看不到活的生命。有一天, 一位神靈在山頂上看到一枚蛇卵, 他覺得奇怪而靠近仔細察看, 神的眼睛放射出靈光指透進入蛇卵內, 看見有一個人形。不久, 蛇卵經由陽光的照射而破裂, 從裡面走出一個人來, 他就是排灣族貴族的祖先。” 林道生, 『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 119-120쪽 및 達西烏拉彎 畢馬, 『排灣族神話與傳說』, 47쪽 참조.

여신이 길에서 百步蛇 알과 龜殼蛇 알을 주워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보사 알에서 남자가 나왔는데 후에 두목의 조상이 되었고, 구각사 알에서는 여자가 나왔는데 두목의 보좌이자 평민의 조상이 되었다. 두목과 보좌가 결혼하여 콧구멍 하나, 반쪽 입술의 기형아가 나왔다. 이후 귀족 두목과 평민이 혼인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sup>41)</sup>

첫 번째는 배만족 조상이 蛇卵의 부화로 출생했다는 기술이다. 뱀과의 교혼에 의한 인류탄생이라는 蛇生 유형과는 다른 형태이다.<sup>42)</sup> 뱀에 의한 난생 모티프를 기본구조로 하면서도 태양이라는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홍수라는 요소도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에 의한 난생 유형과 홍수와 인류 재생 모티프가 부분적으로 스며든 형태의 고사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고사 역시 뱀 토템이 반영된 뱀의 난생 유형으로서, 여기서 귀족과 평민의 분별은 계급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천계의 여신 등장은 모계사회의 반영이고, 남자는 귀족으로 여자는 평민의 조상으로 되었다는 묘사와 귀족 남자와 평민 여성의 결혼 금기는 모계에서 부계로의 전이와 남녀차별 사상, 그리고 신분 차별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기형아는 홍수와 남매 근친혼의 결과물로 출현하는데, 여기서는 신분이 다른 남녀의 혼인 결과로 기형아를 낳는다는 독특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sup>43)</sup> 다만 남자 귀족과 여자 평민이 금기를 지키면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취약한 면도 엿보인다.

다음으로 노개족 신화 중 뱀의 난생 유형 고사는 다음과 같다.

예전 어느 날에 두 마리의 신령스러운 뱀이 많은 알을 낳았는데, 이 알들

- 41) “女神在路上檢到一枚百步蛇的蛋和一枚龜殼蛇的蛋，把它們帶回家。不久，百步蛇的蛋裂開生出一個男人，他就是頭目的祖先。又從龜殼蛇的蛋生出一個女人，他成爲頭目的輔佐，就是平民的祖先。頭目和輔佐結婚，生下一個只有一個鼻孔和半個嘴巴的孩子。從此，貴族的頭目和平民的結婚就成了禁忌。” 林道生，『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104쪽.
- 42) 뱀을 존중하고 두목의 징표로 여겨던 전통적 관습이 뱀의 난생 유형 신화를 창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達西烏拉彎 畢馬，『排灣族神話與傳說』，48쪽.
- 43) 배만족 고사에도 근친혼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이야기가 있다. 태양이 낳은 알에서 1남 1녀가 태어났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하여 기형아 자녀를 낳았다는 내용이다. 達西烏拉彎 畢馬，『排灣族神話與傳說』，33쪽.

이 부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 부족의 선조들이다. 그래서 이 부족은 뱀 종류를 살상하지 않는다.<sup>44)</sup>

옛날, 바다에 하나의 병이 표류했는데 그 안에 알 두 개가 있었다. 이 두 알은 후에 부화하여 두 마리의 백보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노개족의 선조이다.<sup>45)</sup>

첫 번째 고사는 인간의 시조로서의 뱀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뱀 토템숭배에 근거한 상당히 오래된 원시 신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개족은 여신과 뱀의 알에서 부화한 남자아이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옹기 속 백보사 알이 양광을 받아 부화하여 남자아가 나왔고, 후에 여신과 결혼하여 노개족이 번성하였다고 하는 내용이다.<sup>46)</sup> 태양 알을 뱀이 부화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와 정반대 형태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두 번째는 알에서 나온 뱀이 노개족의 선조가 된다는 [도자기병 + 蛇生] 유형 고사로서 태양에 대한 묘사는 없다. 노개족 신화에는 이처럼 도자기 토병 관련 고사가 특히 많은데, 이는 그들이 도자기병을 초자연적인 神物로 여기기 때문이며, 우두머리 집안에 전해지는 뱀이 그려진 도자기병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난생 유형 고사에서 배만족과 노개족 양자 간 친연성이 쉽게 발견된다.

44) “從前，有一天，兩條靈蛇產下許多卵，於是，就從這蛇卵中誕生出來許多人，是我們這族的祖先，所以，不可殺傷這些蛇類。” 達西烏拉彎 畢馬，『魯凱族神話與傳說』，37쪽.

45) “海上飄來陶罐里的兩顆蛋卵孵化為兩條百步蛇，此即魯凱族人的祖先。” 達西烏拉彎 畢馬，『魯凱族神話與傳說』，30쪽.

46) 노개족 신화 중 난생 유형 고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양→(도자기병)→알→뱀의 부화→노개족 시조 탄생, (2) (태양 없이) 도자기병 속 알의 부화→(뱀)→노개족 시조 탄생, (3) 뱀→알 낳기→부화→노개족 시조 탄생, (4) 도자기병 속 뱀의 알→양광 도움→남아 출생→여신과 교혼→노개족 시조 탄생, (5) 태양과 병 결혼→알(女) 낳기→알과 돌(男) 결혼→딸 출산→딸과 뱀 교혼→아들 출산. 達西烏拉彎 畢馬，『魯凱族神話與傳說』，29-38쪽 참조.

### 3. 결론

타이완 원주민 중 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배만족, 노개족, 비남족의 인류기원 모티프 고사 중 석생, 죽생, 그리고 난생 유형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석생과 죽생 모티프 분석 결과, 세 종족 모두 기본적으로 석생 유형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노개족 신화는 전개방식이 단순한 반면, 배만족과 비남족 신화는 여러 단계의 사회문화요소가 축적된 복잡한 양태를 보이며 풍부한 상상력과 높은 문화수준을 드러내고 있으며, 석생과 모계제 등에서 흡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배만족은 [석생+죽생] 구조 및 뱀과의 교혼이 특징적인 반면, 비남족은 남매혼과 기형아 출산, 인생석과 석생인, [석생+죽생] 구조와 죽생 구조의 혼존, 모계와 부계 혼존 현상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죽생 유형을 통해 동남아 등 남방 문화와의 연계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배만족, 노개족, 비남족 간의 친연성과 함께 비남족과 아미족의 친연성도 확인된다.

난생 모티프 분석 결과, 배만족과 노개족 신화에서 태양의 난생, 뱀의 조력, 계급사회, 뱀의 난생, 토병, 도자기병과 태양의 동시 숭배 등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뱀과 개와 여인의 조력자로의 출현, 비대칭 배합구조, 풍부한 신화적 색채, 모계에서 부계로의 전이와 남성중심 사회 면모, 금기, 뱀의 다면적 역할 등이 배만족 신화 요소의 특징인 반면, 뱀의 태양의 조력자로서만의 역할은 노개족 신화 요소의 특징이다. 한편 비남족 신화에는 난생 유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배만족, 노개족, 비남족은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 중 여러 유형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 종족들이 동일 계열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시에 각 종족은 각기 다른 유형의 고사들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석생, 죽생, 난생 등 성격이 상이한 유형들이 동일 종족 신화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타이완 섬이라는 협소한 지형 속에서 서로 다른 타 종족과

의 혈연적 또는 언어 문화적 교류가 빈번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sup>47)</sup>

타이완 원주민 신화는 중국 대륙 고사와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족생 유형을 통해 볼 때나 원주민 언어가 대체적으로 남도어계 인도네시아어족 언어임에 비추어 남방문화의 독특한 특질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양 군도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및 폴리네시아 민족들과 밀접한 연계 속에 중국 남동부 지역과의 교류를 거치면서 원주민 고유문화가 형성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天降生卵 유형 중 태양조가 보이지 않는 타이완 원주민의 태양난생 유형은 새 토토펜과 태양조 및 난생 유형이 주축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이족 중심의 동해문화구 유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호 연계성이 깊은 그룹인 排灣族, 魯凱族, 卑南族의 신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종족 간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향후 범위를 넓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등 지역 신화와의 상세한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신화의 패턴을 탐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상상력 풍부한 타이완 원주민 신화의 문학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47) 예를 들면 비남족은 족생에서 雅美族과, 종족 기원에서 阿美族과, 배만족은 종족 분리에서 태로각족과, 노개족은 언어문화 교류에서 포농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參考文獻

-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서울: 교문사, 1993.
- 서유원, 『중국창세신화』, 서울: 아세아, 1998.
- 陳國強, 『高山族』, 北京: 民族出版社, 2004.
- 陳文新 編, 『高山族』, 烏魯木齊: 新疆美術攝影出版社, 2010.
- 達西烏拉彎 畢馬, 『卑南族神話與傳說』, 臺北: 星辰出版, 2003.
- \_\_\_\_\_, 『排灣族神話與傳說』, 臺北: 晨星出版, 2003.
- \_\_\_\_\_, 『魯凱族神話與傳說』, 臺北: 晨星出版, 2003.
- \_\_\_\_\_, 『阿美族神話與傳說』, 臺北: 晨星出版, 2003.
- 李福清, 『神話與鬼話』,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 林道生 編著, 『原住民神話故事全集5』, 臺北: 漢藝色研, 2004.
- \_\_\_\_\_, 『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 臺北: 漢藝色研, 2003.
- 馬昌儀, 『中國神話學文論選萃(下)』,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4.
- 潛明茲, 『中國神話學』, 寧夏: 寧夏人民出版社, 1994.

Abstract

Analysis of human creation myth of Taiwan nomadic tribes

Lee, Intack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yths of Paiwan, Lukai and Beinan resided in Taiwan, and also tries to make a search for the relation among these tribes more deeply, based on the mythic stories. There are few world creation stories in Taiwan alpine tribe's myth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lenty of myths related with the human origin. Accordingly, this article is mainly focusing on the creation of humankind, especially the progenitor of the tribes.

Generally speaking, these three tribes have the common mythic patterns, which show us their strong blood and culture relation. At the same time, each tribe has different mythic elements, due to the frequent exchange with the other tribes besides these tribes in a tiny island. Especially, the coexistence of diverse patterns like birth by stone or bamboo and incubation of egg by the sun or snake in a tribe's myths reflects the influence of the mutual relation or unity between tribes with different totems.

And we can presume that the formation of Taiwan alpine culture originated from the culture of southern areas such as Indonesia, Philippine on the one hand, and the culture of southern China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research on the bamboo myth and the close relation between Taiwan alpine language and Indonesian language, and in the light of the partial similarity of Taiwan alpine myth and Chinese one. Meanwhile, the pattern of egg birth by the sun in Taiwan alpine myth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type of oviparity by sunbird, which is popular in the cultural area of east sea including Dong-yi culture.

Key words : myth of human origin, birth by stone, birth by bamboo, birth by egg, lukai tribe, beinan tribe, paiwan tribe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